



코스피 2144.29 (+0.14)	코스닥 666.15 (-3.53)
금리 (연평균) 1.54 (+0.01)	환율 (원/달러) 1159.30 (+2.40) (7일)



[카드의 디지털 혁명] KB국민카드 '테크핀' 전환 04



LCC 타도 되나요?

동체균열 보잉항공기 대거 보유

두려움 떠는 승객들

항공업계 전반에 이른바 '보잉 리스크'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 보잉의 B737NG 계열 항공기를 긴급 점검한 결과 7월 기준 총 11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결함이 발견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이스타항공 2대, 제주항공 1대다.

이런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가 보유한 B737NG 계열의 항공기는 대형항공사 대비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LCC에 대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미 보잉 항공기 운항 중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에는 더 치명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보잉 B737NG 계열 항공기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등 총 11대서 동체 균열 발견

이스타·제주항공 등 LCC업계 해당기종 보유량 많아 불안

국토부, 10일까지 일정 앞당겨 비행횟수 2만회 이상 37대 점검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자 당초 이달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던 B737NG 계열 항공기 일부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미국연방항공청의 긴급 지시로 보잉 737NG계열의 항공기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된 이후, 국토부는 누적 비행 횟수 3만회를 넘긴 항공기에 대해서만 긴급 점검을 벌였다. 이후 누적 비행 횟수가 2만2600회~3만회 미만인 항공기 22대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이내 점검을 마치고로 했으나, 이달 10일까지 2만회 이상인 항공기 37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보잉 리스크'가 저비용 항공사에 미칠 영향은 대형항공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저비용 항공사는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같이 운영할 능력이 부족해 단일 기종만을 보유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B737NG'처럼 한 번 해당 기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항공사가 보유

한 전 항공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익성은 물론 안전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벌써부터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LCC를 선호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전 기종은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보잉사의 B737NG 계열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들 회사를 이용하기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전 기종은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보잉사의 B737NG 계열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들 회사를 이용하기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보잉사의 항공기인 B737MAX 8의 운항 정지로 인해 큰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말 보잉사로부터 B737MAX8 항공기 2대를 들여왔지만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두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하며 현재 운항이 정지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B737MAX8 항공기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들여왔는데 올해 3월 중순 운항을 멈췄다"며 "아직 B737MAX8 항공기 운항 중지에 대한 보잉의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거리 노선인 싱가포르 노선도 지금 취항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2만회 이상인 항공기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점검을 앞당기기로 결정하면서 비행 횟수가 2만회 미만인 항공기 71대에 대한 점검은 언제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만회 미만인 항공기 71대는 각 항공사 별로 이스타 11대, 진에어 12대, 티웨이 13대 등이며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구체적인 항공기 대수를 밝히지 않았다. 보잉의 기술진은 현재 방한해 균열이 발견된 11대 항공기에 대해 새 부품으로 교체하며 수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자사고·외고 등 폐지...2025년 일반고 전환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일반고 살리기에 2.2조원 투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착수
일반고 모집 특례 폐지 등 개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에 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또 향후 5년 간 2조 2000억원이 일반고의 개인 맞춤형 교육과 진로·적성교육 강화를 위해 투입된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이들 특정 유형 고교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가 1.7배, 자율고는 1.4배 많았고, 학비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2025학년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모두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일반고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가 폐지되고,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된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된다. 예컨대 영재고의 경우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 등이 검토된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를 포함해 일반고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전담팀 운영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



OANA 대표단 접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들의 교류 협력체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성부 연합 뉴스 사장을 비롯해 OANA 17차 총회 참석을 위해 입국한 중국 신화, 일본 교도, 러시아 타스 등 28개국 32개 뉴스통신사(음성서 3개사 포함) 대표단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최태원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SK,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펀드' 조성

産銀·쏘카 등과 투자조합 결성

SK가 KDB 산업은행 및 쏘카 이재웅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손잡고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SK는 7일 서울 서린사옥에서 KDB 산업은행과 펀드운용사 옐로우독, SK SPE와 함께 '소셜벤처 투자조합 결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은 KDB산업은행(200억원), 행복나래(100억원), 이재웅 쏘카 대표(80억원), 임팩트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옐로우독(20억원), SKS PE(20억원) 등이 420억원을 출자하고, 내년초까지 500억원을 채울 예정이다. 소셜 임팩트 중 국내 최대 규모다.

투자 대상은 ▲질 높은 교육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처 등 유엔이 규정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17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을 '유니콘 기



(왼쪽부터) SKS PE 유시화 대표,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이형희 SV위원장, KDB산업은행 장병돈 부행장,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가 결성식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

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펀드 목표다.

투자조합은 최태원 SK회장이 평소 민간 자본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자고 강조하면서 추진됐다. 투자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해 자금을 회수하고 또 사회적 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앞서 SK는 2017년 110억원 규모로 KEB 하나은행과 1호펀드를 조성하고,

2018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 200억원 규모 2호 펀드를 결성하는 등 '착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쏟아왔다.

아울러 이번 펀드는 민간기업 SK와 정책금융기관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육성 활동을 이어온 이재웅 대표 등 다양한 전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의미도 크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은 자금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